

한국교회연합, 천환 목사 신임 대표회장 추대



한교연 제15회 총회가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신임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한교연 기를 흔들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4일 제15회 총회 개최

천 신임 대표 “한국교회 연합 마중물 될 것”
“대표 보수 연합기관 되도록 변화 이끌겠다”
총회 선언문 “주님 증거하는 복음선교 앞장”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이 4일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총회를 열고 천환 목사(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전 대표회장, 예장 고신 증경총회장)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다. 세계 주어진 책임과 사명이 어느 때보

다 무겁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리라 믿는다”며 “밀알과 같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 하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뭇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건국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함께 밀알이 되어 주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한다”며 “마음을

열고 오직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연합을 위한 마중물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천 신임 대표회장은 후보 소견서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의 오염이 한국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한교연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 연합기관으로 서도록 선두에서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다.

또한 “세계적인 복음 기구들과 여계를 나란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교회와 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이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연합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매우 중요한 본분”이라며 “회원 교단·단체가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 더욱 친밀히 소통하며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 한국교회에는 온갖 불건전한 신학 사조가 침투하고 있다”며 “복음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아카데미를 세워 바른 신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선교 자원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밖에 한교연은 이날 김바울 목사(대한예수교토리교회연합), 장시환 목사(예장 올레넷), 이영한 장로(한국기독교인

합회)를 상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서기는 정광식 목사(예장 개혁)를 선임했다.

한편, 총회에선 감사 및 재정 보고와 공로·축하해 증정이 있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안을 비롯해 임원·감사와 상임·특별위원장 및 법인 대표·이사 인준 등의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이날 채택한 ‘제15회 총회 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지난 140여 년의 부흥이 가져다준 외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신앙의 질적 성숙을 간과했던 잘못을 깊이 회개하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복음 선교에 앞장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사회 그늘진 곳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길 것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모든 좌파적 이념 결사반대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신(新) 자유주의 신학 배격 등을 선언했다.

한교연은 “교회의 하나 됨이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임을 깨달아 교단의 크기, 신학적 배경을 초월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한 형제로서 주님이 분부하신 사명의 짐을 가까이 함께 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날 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김요셉 목사가 축사하기도 했다. 그는 천환 신임 대표회장에 대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이라고 증거하기도 했다. 김진영 기자

한교총 신임 대표회장에 김정석 기감 감독회장 추대

4일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려…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 부결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한교총)이 4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제9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에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추대됐다. 공동대표회장은 김동기 목사(예장백석 총회장)·홍사진 목사(예성 총회장)·정정인 목사(예장대신 총회장)가 선출됐다. 신임 사무총장은 김철웅 목사(예장통합)가 선임됐고, 법인 사무총장은 전 사무국장 정찬수 목사(기하성)가 연임됐다.

이는 제8-5차 상임회장회의와 제8-1차 임원회 결의에 따라 대표회장과 신임 공동대표회장 등 신임 임원단이 내정된 상태였고, 이날 정원 320명에 총 출석 243명(출석 187명 위임 56명)으로 성수된 한교총 정기총회에 상정돼 공식 결의됐다.

신임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가 선교14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며 “교단과 교회를 넘어 이 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책임이 한교총에 있고, 함께 더불어 힘을 모아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에서 제4조 ‘사업’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일었다. 개정안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하에 별도 법인을 둘 수 있고, 운영방식은 운영세칙에 정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고, 총대 일부는 법인 설립 시 예산 분배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결국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의 건의 가부를 묻는 표결이 이뤄졌고 총출석 220명(164명 위임 56명)에 108명 찬성으로 정족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위의 것이 부결됨에 따라 임원선임규정 제5조 ‘대표회장 후보군’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역시 부결됐다. 현재 한교총은 회원 교단을 규모별로 가·나·다·라 군으로 나눠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직을 안배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가군은 2년·나군은 3년·다군과 라군은 4년 이내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 규정에서 △가군은 7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2천5백 교회 이상 교단 △다군은 1천 교회 이상 교단 △라군은 1천 교회 이하 교단이었는데, 이중 △가군은 9천 교회 이상 교단 △나군은 3천 교회 이상 교단으로 각각 개정됐다. 상위 두 개 군의 기준을 상향했고, 다군과 라군은 그대로 두었다. 이에 따라 가군엔 예장 합동·통합·백석이, 나군엔 기감·기하·성기침기성이 속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과

같다. 다군엔 예장 고신·개혁·합신·대신·개혁개신·백석·대신과 예성이 속해 있다.

아울러 기존 규정에서는 대표회장의 자격을 ①회원 교단의 추천을 받은 현직 교단장이나 ②교단장을 지낸 자(1~4회기 공동대표회장 포함)로 명시했으나 ②를 삭제하고 현직 교단장으로부터 한정했다.

이 밖에 예장개혁종로(총회장 박만진 목사), 예장고려(총회장 허호성 목사), 예장합총(총회장 오희자 목사) 총회의 허입건이 통과돼 한교총은 39개 교단과 6만 4700여 개 교회를 아우르게 됐다.

앞서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전임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예장합동)는 “연합은 승리의 열쇠이자 복음의 문을 여는 결정타”라며 “연합은 진리를 지키는 힘이며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노형구 기자



김정석 신임 대표회장 ©노형구 기자



신구 임원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

미래목회포럼 제22차 정기총회… 황덕영 대표·이상대 이사장 연임

다문화·기후환경·중독사역 등 중점 추진…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 확대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사단법인 미래목회포럼이 4일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대표로, 서광교회 이상대 목사를 이사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두 인물은 지난해에 이어 각각 대표와 이사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인사말을 전한 황덕영 대표는 “내년 한 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잘 붙잡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힘 있게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이루는데, 미력하지만 함께 배우며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상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4년째 이어가게 되었다. 책임감이 크다”며 “2026년 다음 세대, 미래 목회, 공적 책임 등 3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더 겸손하고 단호하게 섬기겠다”며 미래목회포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4회 ‘올해의 기자상’과 고향교회 수기 당선작 시상식도 진행

됐다. 제4회 ‘올해의 기자상’에는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가, 고향교회 수기 당선작에는 구암교회 서창범 목사가 당선됐다.

아울러 김학중 목사(꿈의교회)가 이사장으로 추원되었고, 새로 가입한 신입회원으로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광운교회 김신형 목사, 하늘비전교회 장충만 목사가 중앙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신형 목사는 “한국교회를 위해 더 헌신하고 섬기는 겸손한 종이 되겠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 배우겠다”고 말했다고, 장충만 목사는 “저 또한 선배 목사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잘 배우서 깨달을 수 있는 후배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포럼은 이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를 향해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역으로 다문화(이주민) 문제, 기후환경 대응, 중독 사역을 꼽고, 해당 분야를 중점 과제로 삼아 각 위원회 중심의 포럼 개최와 전문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공공성강화위원회와 평화통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미래목회포럼 제22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또한 매년 설과 추석에 추진해 온 ‘고향교회 방문 캠페인’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 교회들의 참여를 늘리고, 농어촌 지역 목회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 교회와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여진 취임 및 위촉 감사예배는 김인환 목사(함께하는교회, 다문화(이주민)사역위원장)의 사회로, 조희완 목사(월드미션교회, 정책위원장의 기도, 임시영 목사(신수동교회, 실행위원의 성경봉독,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 상임교문의 설교, 대표·이사장 인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AI 시대 참목회자상’(딤후 2:19-26)을 주제로 설교하며, 인공지능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의 중요성

을 강조했다.

오 목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잘되기를 모두가 바라지만, 총회 현장에서는 지역주의에 갇힌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지난 9월 총회에서 드란단 여러 모습 속에서 전리보다 지역적 이해가 앞서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쉼밭이 앞서는 총회가 아니라, 신실한 목회자들에 의해 이끌어가는 총회가 되어야 한다”며 “총회 일은 지역교회 담임목회보다 훨씬 쉽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다. 자기 세력과 이름을 드러내려 할 때 어려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신 총회에서 제기된 설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손현보 목사가 설교자로 세워졌는데 도망갈 리 없다”며 “동역자라면 교단을 초월해



(왼쪽부터) 대표 황덕영 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 ©장지동 기자

설교할 기회를 주고, 이후 설교의 내용과 강도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오 목사는 정교분리 논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언급했지만, 이는 교회가 정치를 방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들의 가치관과 투표 기준을 제시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 정교분리를 상호 불간섭주의로 이해하는 것은 오히려.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단 1인치도 없다’고 말했다. 모든 사회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정치적 사안을 말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교회는 거룩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목회자들은 서

로 대립하지 말고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목사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국민을 갈라치지 않고, 마음을 밝히는 정치에 힘써야 한다”며 “목회자는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우려 가야 한다. 정치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전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성진 총장과 CBS 나이영 사장이 전했다. 정 총장은 “우리의 법치라는 것이 있다. 좋은 무리와 함께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 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미래목회포럼이 지금 22년 차에 들어섰다. 한국교회의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으로, 좋은 무리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축하받을 만한 일이라 생각한다.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함께 손잡고 축소사회에 한국교회를 견인해 가는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나이영 사장은 “미래목회포럼이 앞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심을 잡아 미래를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며, CBS 또한 뒷받침해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잘 반영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영상을 통해 의도도순복음교회 이영호 목사, 신촌성결교회 이정원 원로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장지동 기자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2025 홀리위크 시작

오는 6일 새벽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서울기독교청년연합회(대표 최상일 목사, 이하 서기청)가 주관하는 2025 홀리위크(Holy Week)가 “God-vernment” 위정자들에게 복음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가”라는 주제로 서울 용산 시티미션교회(이규 담임목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2일 목회자 기도회에 이어 3일에도 500명 이상 참석한 가운데 예배가 이어졌다. 앞으로 토요일 새벽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이번 홀리위크는 특별히 “정치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한다.

목회자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의정부총이나무교회 정현영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역경을



2025 홀리위크(Holy Week)가 진행되고 있다. ©서기청

이겨 낼 것”이라고 전했다. 목회자들은 국회사당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며 대한민국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했다고 한다.

3일 강사로 나선 일산하나교회 김동진 목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사모함을 넘어 전심의 기도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 가운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역설했고 더바이블처치 김윤기 목사는 “인간의 무능함을 전제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히 국회보좌진 신우희 회장으로

섬기는 김성훈 선임비서관은 “국회 안에 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있다”고 알리고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윤영 의원이 드렸던 기도문을 나누며 기도했다.

서기청 대표인 최상일 목사(은정감리교회)는 “국회의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본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또한 형식적인 기독교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바른 분별력과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다.

예배에 참석한 최이슬 청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도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홀리위크의 방송팀으로 섬기는 이하늘 간사는 “오늘 공교롭게도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많았던 하루였지만 하나님은 그중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든 회중들이 임재를 경험하고 벅찬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본 광고는 시각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당신 주변에는 LS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는 LS가 있습니다

Everywhere you live and work

LS

<전력 공급 및 제어 시스템> <해저 전력케이블>

“저출산·고령화로 돌봄 수요 급증… 교회가 역할을”

기독교한국침례회, 돌봄목회 세미나 개최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최인수 목사)가 최근 수원중앙침례교회(담임 고명진 목사)에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정책과 돌봄목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교회의 역할과 돌봄목회 사역 적용모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윤배근 목사(사회부장, 꿈이있는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최인수 총회장(공도중앙교회)은 “돌봄사역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지속적으로 코칭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섬기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장현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신생명나무교회 목사)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애 주기 전 영역에서 돌봄 사각지대가 더욱 심각해질 상황에서 교회 공간 활용의 확대(국도교통부령 공포, 건축법 시행

규칙 제12조의3(복수용도)제2항에서 단서 신설, 2025.1.14로 교회를 열린 돌봄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해 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면 한국교회는 공공성과 공교회성, 신뢰성 회복으로 섬김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이어 “조저출생 초고령사회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가 한계(연기금 소진 2055년)에 이른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 중심의 돌봄통합체계 전환이 시급한 이 때, 한국교회는 교단과 신학대학에 ‘통합돌봄선교 통합돌봄목회’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무료급식, 엘드링노인대학, 무료진료, 도시락 전달 등 지역 맞춤형 돌봄통합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로 소셜서비스구호전문 NGO (사)월드뷰티엔즈의 ‘엘드링통합돌봄센터’를 소개했다.

이어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는



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수원중앙교회 통합교육 및 복지재단 사역을 소개하며, “교회가 복지를 하는 이유는 오직 영혼구원에 있다”며, “진정한 영성은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은 “돌봄통합지원법은 복지노동-산업건설 등 정부 부처 간 협조와 철저한 지방분권이 함께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고난도 정책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변화와 교회 역할을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북부 나이지리아서 목사 등 최소 20명 납치… 11월 한 달 400명 넘어

학교·교회·가정 동시 노린 연쇄 납치 사태… 미국도 “종교적 폭력 우려” 압박 강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에서 최근 납치 사건이 잇따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3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11월 마지막 주말에만 두 건의 공격으로 목사와 아내, 예배 중이던 신자들, 그리고 신부와 들러리 등이 잇달아 납치되는 등 최소 20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끌려갔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과 AFP 등 국제 언론은 연속적인 공격이 여성과 어린이,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알려진 사건은 코기(Kogi)주에서 발생했다. 무장 조직이 주일예배 중

이던 체루밤세라핌 교회(Cherubim and Seraphin Church)를 급습해 목사와 그의 아내, 그리고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은 예배자들을 납치했다. 그 전날 밤 소코토(Sokoto)주에서는 신부, 들러리, 아이를 데리고 있던 젊은 여성 등 여러 사람이 무장 괴한에게 붙잡혀 갔다고 보도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11월 19일 서부 나이지리아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는 남녀 학생 300여 명과 교사 12명이 대규모로 납치되는 사건도 있었다. 학생들은 10세에서 18세 사이로, 일부는 군과 지역 주민의 도움으로 도주하거나 구소됐지만 상당

수는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11월 한 달에만 400명 이상이 납치됐다”며 심각한 안전 위기를 경고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납치 조직이 요구한 막대한 몸값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독교협회(CAN)는 이번 사태를 단순 범죄가 아닌 종교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대니얼 오킴(Daniel Okoh) CAN 회장은 “북부 취약 지역의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반복적 공격 패턴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볼라 티누부(Bola Tinubu) 대통



나이지리아 육군이 보르노주 아스키라/우바 지역의 무사 구역에서 보고하람/ISWAP 테러 조직에 의해 납치된 10대 소녀 12명을 구조했다. ©Nigerian Army

령은 잇따른 납치 사태가 국가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돼 있던 G20 남아공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했다. 그는 “모든 나이지리아인은 안전한 권리가 있으며 정부

는 이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군경은 11월 18일 또 다른 교회에서 납치된 예배자 38명을 구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이지리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미 국무부 아프리카국의 조너선 프랫(Jonathan Pratt) 수석 관계자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이지리아에서 반복되는 기독교계 대상 공격은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라며 제재와 국방부의 대테러 지원 가능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용 가능한 모든 외교·안보 수단을 동원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노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나이지리

아를 ‘특별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재지정했다. 이는 미국이 종교 박해 국가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분류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내부에서는 폭력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종교적 동기가 뚜렷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측에서는 나이지리아 전역의 복잡한 무장 세력과 치안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보고 있다. CDI는 최근 연속된 납치공격은 어린이와 여성,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가 반복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여전히 수백 명이 납치범의 손에 남겨져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점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세르비아 교회의 중독 회복 사역, 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다

목회자와 지역교회가 이끄는 재활센터, 중독·노숙인 회복의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세르비아 제2의 도시 노비사드의 거리에서 삶을 잃어가던 이들이 다시 한 번 인간다운 일상을 되찾고 있다고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세르비아 기독교 공동체가 운영하는 ‘레인보우 재활센터’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그리고 노숙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들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 세르비아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한 약 6,000명의 복음주의 신자들 가운데 이 사역을 이끄는 주축에

는 듀산 베레지(일명 ‘베라 목사’)가 있다. 그는 “중독의 힘을 잘 안다”며, 매일같이 유혹과 싸우는 삶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센터의 목표는 중독자들이 더 이상 약물이나 술에 대한 욕구 자체를 느끼지 않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인간적 의지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상처와 공허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가능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세르비아의 약물 문제는 1998년 코소보 전쟁 이후 더욱 악화됐다. 아프가니스

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마약 밀매 루트가 세르비아를 지나며 헤로인이 저가로 대량 유통됐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거리에서 하나의 ‘질병’처럼 번졌다. 베라 목사는 많은 친구들이 이 시기 중독으로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초기에는 이들을 크로아티아 등 외부 재활센터로 보냈지만,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면 연결망이 없어 재차 중독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베라 목사가 이끌던 교회는 2008년 자체적인 재활센터 설립을 결정했다. 최초에는 7명의 중독자를 돕는 것이 목표였다. 이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발전시켰고, ‘틴 켈린지’ 모델을 참고해 영적·정서적·생활적 회복을 함께 다루는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는 약물 중독자뿐 아니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 다양한 형태의 중독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최근 세르비아 사회 내 헤로인 사용률이 낮아졌지만, 대신 코카인, 부프레노르핀(서부텍스), 합성 헤로인, 메타돈 등 다양한 약물의 혼합 중독이 늘어나 회복 과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센터는 도시 내 건물 한 곳과 근교 마

을의 또 다른 건물에서 운영되며, 모두 남성 중독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여성 재활 시설도 검토했으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현재는 타 기관의 도움을 얻어가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중독자 재활뿐 아니라, 별도의 ‘핸드 포 어 프렌드(Hand for a Friend)’ 프로젝트를 통해 노숙인을 돕는 사역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역은 단순히 음

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거리에서 고립된 이들이 ‘다시 사람’ 대접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중심으로 운영된다. CDI는 센터 사역에서 늘 재정이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으며, 전체 운영비의 약 75%만 자체 사업으로 충당되고 있다. 교회는 이 간극을 채우기 위해 가정용 운반·이동 서비스, 농업 장비 대여 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세르비아에서 벌어지는 학생 시위와 정치적 불안정은 지역 경제를 흔들며 사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센터를 거쳐 간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이는 크로아티아에서 교회 개척자가 되었고, 또 다른 이는 의사가 되어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은 도시에 재활센터를 세울 계획이며, 특히 중독으로 진단되기 전 단계에서 삶의 리듬과 기능을 잃어가는 이들을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최승연 기자



듀산 베레지(일명 ‘베라 목사’, 오른쪽) 목사와 재활센터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치료 중인 환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CDI

파키스탄, 기독교인 중심의 위생 노동자 보호 위해 첫 헌법 청원 제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파키스탄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 집단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위생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법적 조치가 추진됐다고 2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파키스탄 국가인권위원회(NCHR)는 최근 신설된 연방법원(FCC)에 헌법 청원을 제출하며, 수십 년간 수많은 사망 사고를 초래해 온 수작업 하수도 청소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특히 기독교인과 힌두교인 등 소수 종교자계층 집단이 대다수를 이루는 위생 노동자들이 직면한 구조적 차별과 위험한 작업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법적으로 제기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1월 21일, FCC 아민우딘 칸 대법원장을 포함한 3인 재판부는 첫 심리를 진행했다. NCHR 측은 위생 노동자들이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하수도에 투입되는 현실을 설명하며, 이는 생명권·존엄성·평등권·안전한 노동 환경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NCHR은 “파키스탄 내 위생 노동은 여전히 가장 위험한 직종 가운데 하나이며, 반복되는 실사사와 감전사, 독성 가스 노출은 모두 예방 가능했던 죽음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NCHR이 최근 발표한 ‘파키스탄 위생 노동의 위험성’ 조사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망·부상 사례가 다수 기록돼 있다. 시민단체 ‘스위퍼스 아 슈퍼히어로즈’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파키스탄 19개 지역에서 최소 84명의 하수도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심지어 심리 하루 전날에도 신드주에서 한 노동자가 배수구 작업 중 질식사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보고됐다. NCHR의 법률대리인 이크발 나사르 변호사는 “이 비인간적 노동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정부 개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물·하수도 공사, 폐기물 관리 기관, 각 주 정부 등에 공식 통지를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NCHR 라비아 자베리 아가 위원장은 심리 직후 “맨손으로 하수도를 청소하게 하는 것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애초에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며, 위생 노동의 전면적 기계화와 안전 장비 도입, 강력한 산업안전 규정 집행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위생 노동이 ‘천민 직업’으로 낙인찍혀 있으며, 주로 기독교·힌두교 등 소수 종교 공동체가 떠맡아 왔다. 2021년 법정의센터(CLI)는 보고서 수치를 낙인에서 이 직종이 식민지 시대 카스트 구조의 잔재로 이어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소수자 집단을 특정 직업군에 묶어 두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



파키스탄의 위생 청소부의 모습. 이들은 보호 장비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노동 보호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기독교일보 DB

다. 지난 7월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갈라보면 그들도 피가 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위생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도 조직적 차별과 위험한 노동 환경, 종교·카스트 기반 배제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생직 채용 공고 약 300건 가운데 상당수가 노골적으로 ‘비무슬림 지원자’ 또는 ‘하층 카스트’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앰네스티는 정부 기관 다섯 곳을 조사한 결과, 기독교인들이 가장 낮은 등급의 위생 노동직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 거부된 채 계약직일용직 형태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 혜택과 안정적 급여,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워커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갓스윌연합교회, 이희철 원로목사 추대 및 제7대 강현규 담임목사 취임

정재호 감독 “엘리사가 구한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 의지하는 교회 되길”

갓스윌연합교회(God's Will Alliance Church)가 지난 11월 30일 오후 3시 30분, 아름다운 리더십 교체를 알리는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지난 20년간 교회를 든든히 세워온 이희철 목사의 40여 년 목회여정을 기리고, 제7대 담임으로 부임한 강현규 목사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MA 한인총회 감독 정재호 목사는 마태복음 3장 16-17절을 본문으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리’는 제목의 설교를 전하며 영적 계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정재호 감독은 설교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목회와 사역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원로목사 추대식에서는 1984년 목사 안수 이후 40여 년간 복음을 위해 달려온 이희철 목사의 사역을 회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005년 부임해 2025년까지 20년간 갓스윌연합교회를 섬긴 이희철 목사는 담사를 통해 지난 사역을 회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 40년의 목회 여정, 특히 이곳에서의 20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성도들의 사랑 덕분이었다”며 감사를 전하고, “이제 강현규 목사님 깃발을 중심으로 더욱 연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되라. 기도로서 후원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소회를 밝히며 성도들의 눈시울을 불렀다. 이어 정재호 목사가 총회를 대표해 이 목사에 게 추대패를, 교회를 대표해 송봉섭 장로



행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의 기념촬영. ©교회 측 제공

가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제7대 강현규 담임목사는 취임 사약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결단을 공표했다. 강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본받아 신성한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다”며 “말씀

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 무리의 본이 되며,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성도들 또한 강 목사를 하나님에 보내신 사자로 알고 순종하며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서약했다. 이어 정재호 목사가 총회를 대표해 강현규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했다.



강현규 목사(오른쪽)가 갓스윌연합교회 제7대 담임으로 취임하고, 이희철 목사(왼쪽)가 원로 목사로 추대됐다. ©교회 측 제공

새로 취임한 강현규 목사는 한신대 신학대학원(M.Div)과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과정을 마쳤다. 그는 나성동산교회 전양목사, 좋은친구들교회 담임 등을 역임했으며, 미주기독교방송

뉴스 진행 아나운서 및 재미한인기독교선교재단(KCMUSA) 사업본부장직, 주님미디어 대표를 수행하며 목회 현장과 미디어 사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한편, 이날 예식은 김영호 목사(LA 소망교회)의 예배인도후에 이창남 목사(주님의 손길교회)의 인도로 추대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진 축하와 권면의 시간에는 고주열 목사(LA 비전교회)의 인도로 최병수 목사(인랜드지역 은목회 회장)가 축사를, 강요섭 목사(러시아 선교사:말라위 대학 종교학교수)와 김희수 목사(샌디에고 뱌엘교회 원로)가 각각 목사와 성도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앞날을 축복했다. 남가주한신동문 목회자회와 소프라노 김미진 등의 축하후에 강현규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마무리됐다. 조셉 리 목사

GMC 한미연회, 20~40세대를 위한 커넥트 컨퍼런스 성료

GMC 한미연회가 주최하고, 연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 커넥트 컨퍼런스가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글로벌감리교회(GMC)가 추구하는 ‘성서적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비전 아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 가정의 회복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가 주강사로 섬기는 가운데 은혜롭게 성료되었다.



컨퍼런스를 기념하면서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글로벌감리교회는 기존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동성애자 목사안수와 동성결혼을 교단법으로 허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는 감리교회 갱신운동에서 시작된 새 웨슬리안 운동이다. 또한 한미연회는 말씀의 권위와 웨슬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한인이민교회의 전국적 네트워크이며, 성서적 결혼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바탕으로 30~40세대 가정사역을 섬기기 위해 커넥트 컨퍼런스를 2024년 시작했다. 컨퍼런스는 한미연회의 비전을 따라 2024년 ‘복음본색’을 주제로, 2025년 ‘기도시대’ 주제로 말씀과 기도로 한인교회와 다음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커넥트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성서적 거룩함에 기반한 영적 정체성과 말씀중심의 세계관이 도전하는 성경적 교회공동체가

개인과 가정의 믿음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의 DNA>,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 한국교회 청/장년사역 리더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가 주강사로 섬겼으며, “율법이 아닌 은혜에서 출발하는 영적교제로서 기도”와 “하나님의 영적 정체성을 담아내는 새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바로 하는 신앙자세”에 대해 큰 은혜를 끼쳤다. 영어권 어린이 집회는 시카고중앙진리교회(이신애 사모) CM사역팀이, 청소년 집회는 Won D. Kim 목사(RockSpring Church, DCMC), Mark Vowell 목사(Fristo GMC), Brian Choi 목사(Bethany GMC)가 강사로 섬겼으며, 가정예배 세미나(백은실 사모)와 크리스천 청년들의 연애, 신앙, 결혼(김기리/문지인 부부) 특강

과 간증, 소그룹 모임 등도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부모와 청장년, Youth, 영, 유아 자녀들이 함께 참여, 기도한 이번 컨퍼런스는 이민교회 온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는 영적 커넥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 기도, 정체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행된 컨퍼런스의 폐회예배는 가정별 안수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커넥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목회자들이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참석자들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컨퍼런스 기간동안 온 세대가 함께 드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다시 세우도록 부르신 성도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었다. 김민선 기자

‘이튼 산불’ 아픔 딛고 희망의 빛 켜다 6일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개최

단순한 축제 넘어 ‘회복과 단결’의 장으로... 오후 6시 메인 무대에서 점등

화마가 휩쓸고 간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굳건한 회복을 알리는 희망의 불빛이 켜진다. 주최 측은 오는 12월 6일 알타데나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점등식(Annual Lighting Ceremony)과 윈터페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점등식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주민들의 강인함을 기리고, 이웃 간의 지지를 확인하며 따뜻함과 기쁨으로 연말 시즌을 시작하는 치유의 장이

될 전망이다. 행사 당일, ‘윈터페스트(Winterfest)’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등식은 오후 6시 진행된다. 주최 측은 “올해는 전통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바로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단결(Unity), 그리고 희망(Hope)에 관한 것”이라며, “하나 된 공동체로서 주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선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망자의 날 (Día de los Muertos) 행사 참가

World Mission University(총장 임성진 박사)는 2025년 10월30일 개최된 제4회 Día de los Muertos 행사에 참석하여 RN-BSN 프로그램과 신규 ADN(Associate Degree in Nursing) 프로그램의 지역사회에 널리 소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Alta Hospitals 및 Southern California Hospitals의 CEO 오마르 라미레스(Omar Ramirez)와 직접 만나 WMU 간호학과와의 비전과 프로그램 강점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 간호 인력 양성과 임상 교육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향후 임상 제휴(Clinical Affiliation)가 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Día de los Muertos 조직위원회 의장이자, Alta Hospitals의 Director of Hospital Care Coordination인 실비아 카스트로(Silvia Castro)와도 의미 있는 네트워킹을 진행하였다. 이는 지역 의료 기관과의 유대 강화를 넘어, WMU 간호대학의 임상 실습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류 자리였다. World Mission University는 이미 CCNE 인증을 받은 RN-BS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ADN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개설을 목표로 현재 California



행사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의 모습. © 학교 측 제공

Board of Registered Nursing(BRN)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WMU는 앞으로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인력 개발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 안정적인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검색하세요!

새로운 **농**
대한민국 농협

사계절맛 제철기부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화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돋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병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답례품 지급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회동에서 사법개혁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강조

최근 열린 대통령실 주최 5부 요인 오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대해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 개편은 광범위한 논의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를 둘러싼 우려와 걱정이 국민 사이에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여러 개편안이 국민의 권

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특히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현행 3심제 구조가 헌법적 정당성과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사법부 구성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해 사회적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제 틀 속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통해 이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뉴스스

지는 만큼 정당성과 신뢰가 보장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헌정 질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 기관들이 각자의 헌법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해 온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사법부 역시 계엄 직후 이를 반헌법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인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언급은 적절하지 않라며 자제를 보였다. 그는 개별 재판부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오찬에 함께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한 침해를 받았던 상황에서 이를 지켜낸 국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그

는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중 시민의 용기 있는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다는 대목이 널리 인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5부 요인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보통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박용국 기자

미국, 한국산 자동차 관세 15%로 조정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 이행…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3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사전 공지됐으며, 정식 게재는 4일 진행된다. 관세 인하는 1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체결된 ‘한

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 사항이며,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과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 동맹의 강력함과 지속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10월 31일 국

빈 방문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며 이번 조치를 ‘무역안보 프레임워크 협정’ 이행과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조정의 핵심은 한국산 승용차·경트럭 및 자동차 부품의 관세율을 15%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총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고, 15% 이상인 품목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1일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 적용분부터 소급된다. 이 외에도 목재 및 관련 제품은 총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민간 항공기 부품(무인기 제외)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추가 관세를 면제하고, 11월 14일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동일하게 15%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너 미 상무장관은 1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 ‘전략적 투자 법안’ 추진을 배경으로 들어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협정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양

국이 서명한 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APEC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합의했으며, 이후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한국산 관세 인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포함된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홍은혜 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소비자 탈퇴 움직임… 소상공인은 대안 없어 버티는 상황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여파… 집단 소송 확산과
셀러 매출 감소 우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탈쿠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을 주요 판매 플랫폼으로 활용해 온 소상공인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매출 감소 속에서도營業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 건으로, 온라인 커머스 업계에서 유례없는 수준이다. 사건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비자 모임에서 불매 움직임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집단 소송 참여 인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1일에는 이용자 1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쿠팡에 입점해 매출을 올려온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쿠팡 입점 2년 차인 강모(28) 씨는 “사건 발표 이후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매출의 9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은 큰 부담”이라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강 씨는 “새벽배송과 로켓배송의 장점 때문에 쿠팡을 택했는데, 소비자가 빠져나가면 살아남기 어렵다”며 “사태 이후 쿠팡으로부터 안내나 지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쿠팡에서 4년째 판매 중인 박모(49) 씨도 유사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과거

위메프 미정산·미환불 피해를 겪은 후 대형 플랫폼 중심으로 판매 전략을 바꿨지만 이번 사건으로 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수익률 압박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까지 발생하니 실망스럽다”며 “쿠팡은 사고에 대한 책임과 함께 매출 감소 보상, 고객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관련 문의에 대해 “민원 접수나 공식적인 매출 감소 보고가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라며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는 소비자 불만이 우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쿠팡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 보상책과 후속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나래 기자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 사의 표명

문진석 의원 인사 청탁 논란 이후 사직…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부터 인사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사진)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비서관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남국 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같은 날 오후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발생했다. 문 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

에게 같은 중앙대 출신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이에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과 현직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답장을 보낸 사실까지 공개되며 논란은 확산됐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직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한다.

대통령실은 논란 발생 직후 공식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을 영종 검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용국 기자

러시아 납치 우크라이나 아동 북한 이송 의혹 제기

러시아군에 의해 납치된 우크라이나 아동이 북한 시설로 이송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지역 인권센터 소속 카테리나 라세프스카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미 상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소 두 명의 아동이 러시아 점령지에서 강제 이동돼 북한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 수용 시설에 보내졌다고 밝혔다.

그는 12세 미사와 16세 리자가 고향에서 약 9,000km 떨어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반달

반미 교육을 받고 푸에블로호 사건 관련 병사들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최소 1만 9,546명의 아동이 납치돼 러시아 또는 통제 지역으로 이동했다. 일부는 강제 입양됐고, 나머지는 군사화·제교육 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인권센터는 러시아 점령지, 러시아 본토, 벨라루스, 북한에 165개의 제교육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은 납치 인원이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르보바벨로바 위원에게 아동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귀환 아동은 1,859명에 불과하다.

유엔 총회는 3일 러시아가 이송한 아동 전원 송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강제 이송과 신분 변경, 입양 중단을 촉구하며 찬성 91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57개국으로 통과됐다.

홍은혜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짹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증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시험 7일 후, 전체 제품 사용 결과 (시험기간: 2023.01.25~2023.03.10) (시험대상) 50인 이상 30점 (주요) (주)올리브영(주)아리따움]

제10회 디셈버퍼스트, 하노이에서 국제 행사 개최

2025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청소년을

중독과 HIV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메시지 확산

2025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제10회 '디셈버퍼스트(December First)' 국제 행사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하노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하노이 한인교회와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에이랩아카데미교회(에이랩),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이 협력해 준비했다. 2016년 시작된 디셈버퍼스트는 매년 세계 에이즈의 날에 맞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국제 행사를 이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지역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중독과 조기 성경험, HIV 감염 위험이 동시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청소년의 성 보건과 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하노이 한인교회는 태원수 목사가 이끄는 대표 한인 복음 공동체로, 말씀 중심의 예배와 돌봄 사역을 통해 지역 교민사회를 섬기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도 현지 참가자들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다.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에 임한 참석자들의 모습. ©주최 측 제공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은 '청소년 HIV 예방 및 바른 성가치관 세미나'로 구성됐다. 한가협과 에이랩의 김지연 대표는 조

등학교 고학년과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성도를 대상으로 총 네 차례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청소년들의 실제 필요를 반영해 구성됐으며, 하노이 한인교회에서 열렸다. 또한 베트남 현지 목회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중독포럼도 마련돼 약 4시간 진행됐으며, 강의 후 40여 분간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베트남 내 청소년 보건 문제는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음란물과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10~20대의 정신 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HIV 신규 감염 위험이 확대되면서, 청소년 보호와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관계자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곧 국가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하노이에서 진행된 디셈버퍼스트는 한국과 베트남이 협력한 의미 있는 국제 연대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태원수 목사는 "내년에 인도차이나반도 5개국 디아스포라 선교사 모임에서도 이 주제가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다음세대지키기연합 김영신 대표의 "한국에서 배운 에이랩 성가치관 교육을 하노이에서 HIV 예방 교육과 함께 진행하니 교육 효과가 컸다"며 "내년에는 호치민에서도 행사를 열고 싶다는 요청이 있다. 대한민국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의 등불로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구 기자

2025년 어린이 생명존중·나눔 교육 성료

서울 43개 초등학교 8,680명 참여... 장기기증의 가치 전달하며 교육 마무리

2025년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 프로그램이 12월 1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본부)는 서울특별시의 지원 아래 운영된 「모든 생명이 소중해」 교육을 통해 43개 초등학교 8,680명의 어린이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의 의미를 전달했다. 올해 마지막 수업은 신림초등학교와 을지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본부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나눔 교육을 시작한 이후 6년간 618개 학교, 약 5만 명의 학생을 만났다. 2025년 교육에서는 교재가 새롭게 개편돼, 어린이 눈높이에 맞

춘 장기기증 이야기가 추가됐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협업해 제작한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푸른 별〉과 〈붉은 돌고래〉가 새롭게 선보였다.

동화 〈붉은 돌고래〉는 장기이식 과정을 어린 시각에서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영웅이의 가슴에 살던 붉은 돌고래(심장)가 거센 폭풍우를 지나 아픈 새봄이에게로 헤엄쳐 가는 장면이 펼쳐지며, 장기기증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아이들은 동화를 듣고 "붉은 돌고래가 심 없이 헤엄쳐 두 바다가 이어진다", "새봄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하며 강한 공감을 표현했다.

그림책 영상 제작에는 한국영상대학교 미디어보이스학과 학생들이 목소리 재능 기부로 참여했다. 또 다른 그림책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푸른 별〉은 낮은 학년을 위해 자신의 별 조각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를 담아 나눔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교재 활동도 더욱 풍성해졌다. 학생들은 장기의 위치와 기능을 직접 배우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약속했고, '마음 처방전'을 작성하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활동을 경험했다. 또한 또래 장기기증인과 장기이식인의 실제 사례를 읽으며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가족과 친구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를 체득했다.

교육이 진행된 영훈초등학교는 7년째 생명나눔 캠페인을 이어오며 장기기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학교는 장기이식 어린이 수술비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학생회장 김하람 양은 "장기기증은 아픈 친구가 다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우리 학교가 작은 희망을 나눌 수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본부 김영란 교육홍보팀장은 "본부의 생명존중 교육은 생명의 존엄성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어린 시절



생명존중 및 나눔 교육을 수료한 영훈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 ©주최 측 제공

부터 생명나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시작된 교육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해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생명나눔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영산조용기자선재단, 하남시 취약계층에 미소나눔 쌀 2톤 전달

벤엘나눔공동체와 협력해 노인 무료급식 지원 확대



벤엘나눔공동체 이동주 사무국장(왼쪽)과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조형서 학생인턴. ©단체 측 제공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사장 윤홍열·김기돈)은 최근 하남시에 위치한 벤엘나눔공동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미소나눔 쌀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전달식은 겨울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식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재단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조형서 학생인턴과 벤엘나눔공동체 이동주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재단은 노인 취약계층 무료급식에 사용할 미소나눔 쌀 2톤을 지원하며, 증가하는 겨울철 급식 수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완화하

는 데 힘을 보탤다. 전달된 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끼니 걱정 없이 식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된다.

벤엘나눔공동체는 하남시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식생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기관으로, 그동안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해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 가구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지역 복지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무료급식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재료 확보"라고 설명하며,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을 덧붙였다.

이번 미소나눔 쌀 전달은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꾸준히 이어온 복지 지원 활동의 연장선으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 강화와 식생활 안전망 확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연 기자

한국해비타트, 최시원과 함께

은퇴 선교사 주거 지원 캠페인 본격화

한국해비타트가 해외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뚜렷한 주거 대책 없이 지내는 은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새로운 지원 캠페인 '돌아온 선교사의 피난처'를 출범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랜 기간 복음 전파에 헌신한 선교사들이 노후에 최소한의 주거 안정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동서선교연구개발원 한국본부가 전 세계 54개국 선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5%가 은퇴 후 머물 집이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 37.5%는 보험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18.5%는 국민건강보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선교사들의 삶이 제도적 보호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해비타트는 지난 9월 17일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를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하며 본격적인 대중 참여 모금운동에 나섰다. 최 홍보대사는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 문제는 누군가는 반드시 앞장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보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교회와 시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운동"이라며 "현실적으로 사역에 온 선교사들이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다'는 절망 속에 머물지 않도록 전국적인 나눔 참여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비타트는 캠페인 첫 단계로 경기도 양평과 제주 지역에 18평 규모의 목조 단독주택을 마련해 무상대차 방식으로 제



공할 계획이다. 이후 참여 단체와 후원 규모에 따라 지원 지역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94년 설립된 한국해비타트는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 왔다. 건축 봉사자, 기업, 교회, 각종 단체의 후원과 참여를 통해 전국 곳곳에서 집짓기와 마을 재건에 힘써왔다.

노형구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

기다림의 때, 대림절: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며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테일러 콕스(사진)의 기고글인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대강절(Advent)을 필요로 하는 이유'(Why we need Advent more than ever)를 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테일러 콕스는 The One We're Waiting For: An Illustrated Advent Devotional For Families의 저자이며, 린스컴대학교에서 성경 및 사역(Bible and Ministry) 학사 학위를, 서던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그리고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역사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박사 연구는 개신교와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그는 기독교 출판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필자는 다소 멜랑콜리한 성격을 가진 편임을 인정한다. 아마도 그것이 대림절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대림절은 멜랑콜리와 기쁨이 완벽하게 섞인 시기이다. 세상의 어둠에 대한 진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낯선 그대로의 시기이며, 동시에 우리는 희망을 감히 품는다. 그리고 해마다 그 희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어둠의 시간을 겪

는다. 사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지금, 필자의 가족 역시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의 뜻밖의 죽음으로 가장 어두운 계절 중 하나를 지나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슬픔을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여러분의 어둠의 시간은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 불치병 진단, 돌아오지 않은 자녀, 경제적 어려움, 건강이나 힘의 상실, 사랑했던 사람에게 거절당함,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함 등이다.

어둠의 계절이 어떤 모습이든, 일반적으로 어둠은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방향 감각을 잃게 하고, 위아래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자신을 붙잡을지 알 수 없어 두렵다. 또한 외롭다. 어둠은 종종 침묵을 동반한다. 우리는 "밖에 누가 있나?" 하고 느끼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양한 어둠의 계절을 걸어왔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는 바벨론 포로 시절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에게 풍성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거룩하고 특별한 땅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

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지만, 그들을 땅으로 인도한 직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등을 돌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서로에게 불의를 저질렀다.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다른 강력한 나라들의 손을 통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영원히 그들을 버린 것인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분명 혼란스럽고, 두렵고,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은 포로 시절 전과 도중에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영원히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중 가장 큰 약속 중 하나가 이사를 통해 주어졌다. "어둠 속을 걷는 백성 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사는 자에게 빛이 비쳤다. 주께서 나라를 넓히시고, 기쁨을 더하시니, 백성들은 수확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전리품을 나누는 것처럼 즐거워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압제의 멍에와 어깨의 채찍, 억압자의 지팡이를 부수셨으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전쟁의 밝힌 부추와 피 묻은 옷은 불의 연료가 되리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어깨 위에 다스림이 있으리라. 그 이름은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리라. 그의 권세는 넓고, 변역은 끝이 없으리라. 그는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다스리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의로 그들을 세우고 지키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 9:2-7).

하나님은 이사를 통해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한 아이를 보내셔서 위대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며, 공의와 의로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백성은 다시 빛 속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다림
이런 약속을 손에 쥔 백성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예전 같지 않았다. 영광의 날들은 끝났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전만큼 느껴지지 않았다. 백성은 변역하지 못했고 여전히 압제하는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다. 더 나쁜게는, 하나님은 결국 그들과 말씀하시기를 멈추셨다. 400년 동안

선지자들은 침묵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은 없었다. 하지만 백성은 계속 기다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취하는 자세이다. 대림절은 교회력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전 네 번째 주일부터 시작되는 기다림의 계절이다. 대림절이라는 이름은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대림절은 모든 것이 즐겁고 밝음을 축하하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어둠을 기억하고, 그 어둠 속으로 빛을 비추실 분의 도래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시기이다. 세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실 분의 등장을 기대하며, 감히 희망하고 믿는 시기이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 외에는 자기를 양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사 64:4).

◆여전히 기다림
그러나 약속된 아기가 이미 오셨는데 왜 여전히 기다림의 자세를 되새겨야 하는가? 결국 크리스마스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는 오셨으며, 어둠 속을 걷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걸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맞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이다. 그리스도는 백성에게 약속된 아기, 그들을 구원한 자, 공의와 의로 다스릴 왕이 되셨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그리스도의 도래를 말한다. 또 다른 도착, 또 다른 대림절이 있다.

우리는 '때와 때 사이에 살고 있다. 첫 번째 대림절과 두 번째 대림절 사이에 살고 있다. 그리스도는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세상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이 남아 있다. 그 어둠을 느끼지 않는가?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악취로 가득하다. 죽음이 더 이상 없고 승리로 삼켜질 때를 기다린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과 결과로 가득하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믿는 자의 죄 값을 치르셨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갈망한다.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며, 사람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하며, 인종·계층·신념 등으로 서로를 억압한다. 그렇다.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어둠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기다린다.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은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이며, 오실 때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다.

고난과 섭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인 '눈살을 찌푸리는 섭리 뒤에: 하나님과 힘든 시기(Behind a frowning providence: God and tough times)'를 1일(현지시간) 게재했다.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슈마허는 작가로도 활동하면서 많은 책을 냈고 미국 내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2025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자에게도 힘든 한 해였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올해 필자의 아내는 용감하게 유방암 치료를 견뎌냈고, 아직 회복 중이다. 또한, 가족의 뜻밖의 4기 암 진단, 급전적 어려움, 예상치 못한 사건들, 예를 들어 아내 형제 친구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일 등 이 모든 것이 필자의

주변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성경은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얼굴의 근심으로 마음이 즐거워진다"(전도서 7:3)라고 말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항상 어렵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답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불안 치료를 위한 네 가지 처방(테트라파르마코스)이라고 불렀다:

1단계: 신을 잊어라. 두려움과 형벌이 관련되니, 잊는 것이 좋다.

2단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이 없으면 죽음 이후에도 두려움이 없다. 태어나기 전과 같을 뿐이다.

3단계: 고통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고통은 사라지거나 죽음을 부른다. 죽는다면 2단계를 참조하라.

4단계: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추구하라. 다른 욕망은 무의미한 추구로 이어지므로 거절하라.

필자는 플로리다 리조트의 수영장에서 이 방법을 처음 접했을 때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옆 수영장 한 남자가 "맞는 것 같네요!"라고 말하고 떠났지만, 그는 4단계를 어겼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에피쿠로스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많은 불교인들이 시도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깊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불가피하거나 책임과 연결된 고통은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필자는 여전히 "왜?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야?"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필자는 성경이 고통이 도덕적 의미를 가지며, 영적 중요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관여하시기에 구속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필자 또한 여전히 '왜?'라는 질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

로널드 던 박사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를 알면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아픔을 가든, 어떤 모임을 가든, 사람들은 '왜?'라고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왜'라는 질문에 거의 대답하지 않으신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흔히 '주님,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재는 셈이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기억해야 한다. 라틴어로 'pro'(마리)와 'video'(보다)에서 온 섭리란 '마리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단순히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며,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욥기 23장 14절은 "그가 나를 위하여 정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니, 그의 마음 속에는 수많은 것이 있도다."라고 말한다.

스코틀랜드 목사 존 J. 머레이는 『눈살을 찌푸리는 섭리 뒤에(Behind a

Frowning Providence)』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소 짓는 호의로운 섭리도 있고, 어둡고, 거슬리거나 쩌그린 듯한 섭리도 있다." 전자는 필자가 좋아하는 섭리이고, 후자는 힘든 시간을 가져오는 섭리다.

솔직히 말하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 필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찾기보다는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머레이는 그런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네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므로, 그분의 계획 또한 완전하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계획은 포괄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가장 작은 일까지 포함된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마 10:30).

계획은 우리의 궁극적 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때로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유를 알지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 필자는 오히려 삶이 무의미해 보일 때

가 있지만, 순간적으로 진실을 깨닫기도 한다. 혹은 요셉처럼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진 후 22년을 기다려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다. 혹은 평생 알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거울로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전 13:12)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믿는 것이다.

필자는 솔직히 2026년이 2025년보다 나을지, 아니면 더 힘들지 두려움과 함께 궁금해한다. 영국 시인 겸 성공회 찬송 작가 윌리엄 카우퍼의 시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다(Light Shining Out of Darkness)〉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신뢰를 되새기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두려움 성도여, 새 용기를 가져라, 네가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서 네 머리에 축복으로 쏟아지리라. 약한 감각으로 주를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눈살이 찌푸리는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이 숨겨져 있다. 그분의 계획은 빠르게 성숙하며, 매 순간 펼쳐진다. 꽃봉오리는 쓴 맛일지라도, 그 열매는 달콤하리라!"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개인연세저장 해일펀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출발기금

침체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OnBi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전문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필사적’(必死的)으로 ‘필사’(筆寫)하라

신성욱 교수
아신대 설교학



요즘 사람들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간다.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화면이 먼저 말을 걸고, 길을 걸으며 아이폰 속 영상상이 시간을 채우며, 저녁이 되면 게임과 TV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손끝 하나로 무한의 세상이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사유의 깊이를 잃어가고 있다. 스마트폰의 짧은 영상, 게임의 즉각적인 자극, TV의 빠른 전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했지만, 마음의 문은 닫게 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줄어들고, 말은 많지만 생각은 얕아졌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선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 생각해 보라. 그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책을 읽었고, 지혜를 얻기 위해 문장을 곱씹었고,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 보배로운 글들을 베껴 썼다.

그들에게 독서는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필사(筆寫)’는 단순한 베끼기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정제하는 의식’이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선현들의 사유를 빌려 현재를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필사란 그 사유를 손끝에 새기고 자기 마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깊게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화면 속 자극은 빨리 지나가지만, 한 권의 고전과 한 줄의 필사는 우리의 뿌리를 깊게 만든다. 스마트폰은 하루를 채우지만, 고전은 삶을 채운다. 게임은 순간을 남기고, 필사는 생각을 남긴다. TV는 소리를 퍼뜨리지만, 독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깨운다.

젊은이들의 시대는 너무 빨라서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 멈춤이 바로 독서이고, 그 멈춤이 바로 필사이다. 지금 손에 쥔 화면을 잠시 내려놓고 대신 한 권의 고전을 들어보라. 선현들은 우리보다 먼 시대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을 건다. 그리고 그들의 문장을 따라 써 보라. 한 줄을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타인의 지혜가 우리의 사유가 되는 순간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불들여야 할 것은 빨리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혀 주는 깊은 빛이다. 그 빛은 내 손 안의 화면이 아니라, 내 손과 눈과 마음을 통해 천천히 들어오는 책 속에 있다.

고전을 가까이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사다. 필사란 ‘문장을 읽고 손으로 베껴 쓰는 것이다. 우리가 필사해야 할 보배롭게 빛이 나는 위대한 작품들이 즐비하다. 날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이나 게임이나 TV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논어』, 『도덕경』, 『목민심서』 같은 동양 고전에서부터 『데미안』, 『레 미제라블』, 『어린 왕자』, 『침묵의 봄』 등 서양의 인문 및 문학 고전까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영롱한 다이아몬드처럼 빛내 줄 보고들이 넘쳐난다.

이런 고전 속 명문장들을 읽고 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장 속에서 자기 문제를 비춰 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한 문장을 곱씹으며 쓰는 동안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고, 고전의 생각을 오늘의 삶과 연결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사고력과 문해력이 자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깊어지게 됨을 경험할 것이다.

책을 읽는 데서 그치지 말고 쓰면서 생각하라. 성현들의 보배로운 문장들을 한 쪽씩씩 읽고 쓰다 보면 문장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언어로, 언어가 태도로 이어진다.

작품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고, 오늘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건네는 명문장을 책 속에서 골라라. 삶의 태도를 바꿔줄 한 문장, 고민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단서

같은 한마디를 찾아서 읽고 써서 마음에 새겨두라. 하루하루 쓰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고전의 지혜가 나만의 언어로 바뀌어 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렇게 읽고 쓰고 사고하는 과정에서 문해력과 표현력이 배양됨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한 문장이 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한 번 존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

이 문장은 인간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일깨워 준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존재는 없다’는 뜻이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생각, 경험, 성품,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가진 하나의 독특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남과 비교해서 우울증이나 절망에 빠져서 생을 포기하거나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 위의 문장은 새로운 도전과 소망과 용기의 말이 될 것이다. 위 문장이 주는 교훈은 비교와 모방에 빠지기보다 자기 안에 있는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라는 것이다. 남처럼 되려 애쓰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개성을 빛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과 행복의 길임을 일깨워 준다.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주님 뜻에 맞추 수 있는 신 속성 있는 유언한 마음이어야 준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새 부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당시의 기독교 권자들은 자기들끼리 엘리트 집단이 되어 성전의 담을 높여 이방인과 구별하고, 자기들만의 종교적인 사교클럽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간디가 영국 유학생들 중 회교회를 나갔지만 기존 크리스천들이 만들어놓은 높은 담에 막혀, “Jesus Yes, Church No”라는 결론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려면 가까이 불편해지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선교의 1차적 불편함을 이기면 2차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과 같이, 새 부대가 되어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설교는 위로를 넘어 성품의 변화를 촉구해야



김병구 장로
바른구원관 선교회

오늘날 많은 설교가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위로는 복음의 중요한 기능이다. 예수님께서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 그러나 설교가 위로에만 머물고, 변화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점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성도는 위로받는 존재로는 머물 수 있으나, 거룩하게 변화되는 제자로는 자라지 못하게 된다.

오늘날 위로 위주의 설교가 반복되면서 성도들 안에는 ‘위로받는 신앙’은 강해졌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은 약해졌다. 십자가 없는 위로, 화가 없는 은혜, 순종 없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

라.” 성품의 변화 없는 신앙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다.

진정한 치유는 감정이 진정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분노가 절제로, 교만이 겸손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증명된다. 이전과 같은 말, 같은 선택, 같은 가치관을 유지한 채 “위로만 받은 신앙”은 결국 열매 없는 신앙으로 남게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이다.

오늘의 교회는 다시 한 번 설교의 방향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설교는 듣기 편한 말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말이어야 한다. 잠시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월요일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가정과 직장, 돈과 권력 앞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열매다.

설교는 단순한 위로의 기술이 아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성품을 빚어 가는 거룩한 도구이다. 위로는 필요하지만 변화 없는 위로는 불완전하다. 참된 설교는 위로하면서 동시에 돌이키게 하고, 안아 주면서 동시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

2025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묵상할 성경구절 10가지

1.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2. 마가 5:2= “베들레헬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지도자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원은 상고에, 옛날에 있느니라.”
3. 마태복음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4. 누가복음 2:10-11=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5.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 갈라디아서 4:4-5=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7.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 누가복음 2: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9. 마태복음 2:10-11= “그들이 별을 보고 심히 기뻐하여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배워 경배하고...”
 10. 로마서 15:13=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1900년대 초 미국의 도시교통은 마차택시와 우편마차가 중심이었었습니다. 1908년 헨리 포드가 대량생산이 가능한 자동차를 출시하자 마차회사들은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대부분 기존 마차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차 바퀴를 더 크게 제작하거나 마차를 더 가볍게 생산하고 더 빠른 말들로 대체하고 마차 내부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말에 더 좋은 사료를 준다고 자동차 시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마차회사 스투드베이커(Studebaker)를 비

롯한 대부분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 물이 탁하며 짠고, 또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길어 물을 저장해야 했기에 불순물과 세균이 늘어나 살균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불보다 안전한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마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들어 다 보 전되느니라” (마9:17)는 가르침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생명의 예수님이고, 부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입니다. 발효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새 포도주까지 잃게 되는 것처럼, 새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부대인 내가 새 마음, 새 성품으

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야 새 부대가 됩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을 때 건짐을 받았지만 과거의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 맥 레이브 제독의 2014년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졸업식 축사 연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침대 정리부터 하십시오.”는 큰 반향을 일으켜 ‘Make Your Bed (침대 정리부터 하라)’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또 새 부대는 신속성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두 사람이 춤을 출 때는 못 추는 사람이 잘 추는 사람을 따라하는 유연함이 기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출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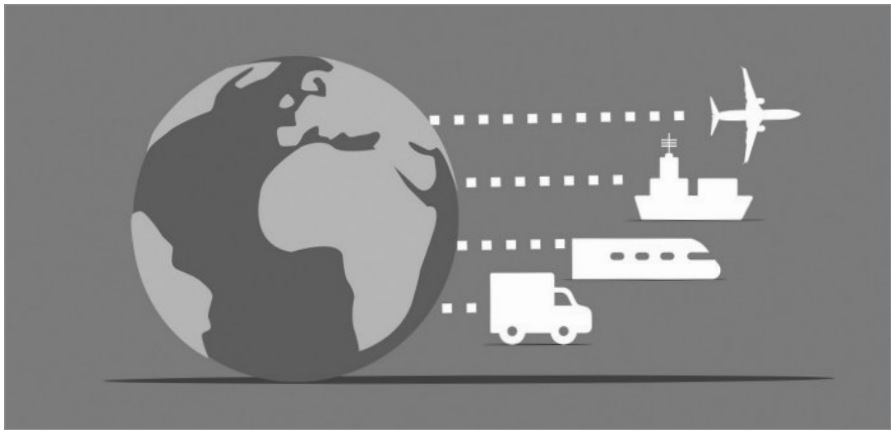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전기방식 확인하고 구매하세요”...해외직구 36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402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을 중심으로 402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

이 9%로 국내 유통제품의 평균 부적합률 5%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기용품은 조사대상 115개 제품 중 전기방식(5개), 전지(2개), 전기요(1개), 전 기스토브(1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160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7개), 학용품(6개), 완구(4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등 20개 제

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은 조사대상 127개 제품 중 온열팩(2개), 스키용 안전모(1개), 전동킥보드(1개) 등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특히 전기방식, 아동용 섬유제품, 학용품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각각 45%, 35%, 27%로 해외직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6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털 및

소비자24에 게재했고 소비자 구매 방지를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하여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해외직구는 KC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안전성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아침 안 먹는 청소년 43.6% ‘최대’ 정상체중 여학생 10명 중 3명 “살췌다”

질병청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은 아침을 안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빠 말라’(극단적인 마른 체형) 다이어트가 유행인 가운데, 여학생 30% 가까이는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이 췌다고 느꼈다.

질병관리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교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결과는 청소년 건강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주 5일 이상 아침을 거르는 청소년은 43.6%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남학생 41.9%, 여학생 45.3%로 각각 1.7%p, 0.6%p 올랐다. 하루 1회 이상 과일을 섭취하는 청소년은 17.8%로 전년보다 0.8%p 감소했다. 남학생은 17.9%, 여학생 17.8%였다.

주 3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청소년은 27.0%였다. 단맛 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62.8%, 여학생 53.5%로 지난해보다 각각 6.0%p, 6.2%p 급증했다. 올해 처음으로 조사한 주 3회 이상 제로 음료 섭취율은 남학생 20.1%, 여학생 12.7%로 집계됐다.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12.6%)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16.6%)이 여학생(8.4%)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청소년 23.1%는 정상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형이 살이 췌

편이라고 인지했다. 특히 여학생의 비중은 28.2%로 남학생(17.6%)보다 월등히 높았다.

중고생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3.3%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다. 남학생(4.4%)과 여학생(2.1%)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남학생 5.4%, 여학생 2.8%로 전년보다 0.4%p씩 줄며 2019년 이후 내림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남학생의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생(8.3%)이 중학생(2.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담배 종류별 현재 사용률은 일반 담배(필련)가 3.3%로 가장 높았고 액상형(2.9%), 필련형(1.6%) 순이었다. 현재 담배 제품 사용자 기준 최근 30일 동안 필련, 액상형 전자담배, 필련형 전자담배 중 2개 이상을 사용한 비율은 61.4%로 2019년(47.7%) 이후 증가 경향을 보였다.

현재 음주율은 8.0%로 전년보다 1.7%p 줄었다. 남학생(9.8%)과 여학생(6.1%)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음주자 중 위험 음주율은 남학생 42.1%, 여학생 52.0%로 각각 1.2%p, 1.8%p 늘었다. 특히 여자 중학생(44.8%)의 위험 음주율이 전년보다 6.3%p나 급증했다.

‘위험 음주율’은 최근 한 달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비율을 말한다.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도 감소했다.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24.5%, 여학생 8.5%로 전년보다 각각 0.6%p, 0.4%p 줄었다. 주 3일 이상 근력 강화 운동 실천율은 남학생 37.7%, 여학생 10.3%로 전년과 유사했다.

주중 학습 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437.5분으로 전년보다 22.4분 감소했으며 학습 목적 외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주중 186.7분·주말 295.4분)도 줄었다.

청소년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은 25.7%로 전년보다 2.0%p 감소했다. 남학생은 21.7%, 여학생은 29.9%로 여전히 높았으나 지난해보다는 1.4%p, 2.6%p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41.3%로 전년보다 1.0%p 줄었다. 남학생은 32.9%로 2.3%p 감소했지만, 여학생은 2명 중 1명꼴인 50.3%가 스트레스를 느꼈다. 전년보다 0.4%p나 상승한 수준이다. 주관적인 수면 충족률은 남학생(28.3%), 여학생(16.9%) 모두 각각 1.2%p, 0.4%p 증가했다. 주중 평균 수면시간을 보면 남학생은 6.6시간, 여학생은 5.9시간이었다.

주중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253.9분, 여학생 293.2분으로 여학생만 12.8분 늘었다. 주말도 남학생은 전년과 유사(363.6분)한 반면 여학생(424분)은 17.5% 증가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최근 10년간 흡연과 음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담배 제품 중복 사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체활동, 식생활 개선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별, 학교급별 건강행태 차이도 지속돼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건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는 8일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하며 통계청 및 원시자료는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서다은 기자

“고혈압 전 단계도 안심 못 해” 치매위험 16% 올라간다

혈압과 치매 연관성 연구 결과 발표

정상 혈압 범위보다 살짝 높은 ‘상승 혈압’(Elevated Blood Pressure) 단계에서도 혈관성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이번 연구는 2024년 유럽심장학회(ESC)가 고혈압의 기준을 강화하며 새롭게 도입한 ‘상승 혈압’ 구간의 임상적 위험성을 대규모 인구 집단을 통해 입증한 첫 사례다.

이민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신경과 교수(교신저자), 정영희 교수, 김종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천대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순환기 내과 교수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혈압과 치매 발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고혈압이 치매의 주요 위험 인자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고혈압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정상보다는 높은 ‘고혈압 전 단계’ 구간이 치매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최근 약간 높은 혈압도 심혈관질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유럽심장학회는 2024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고혈압 전 단계(수축기 120~139mmHg 또는 이완기 70~89mmHg) 구간을 ‘상승 혈압’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혈압 관리를 권고한 바 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09년과 2010년에 건강검진을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40~64세 중년층에서 혈압에 따른 치매 위험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중년 연령대에서 상승 혈압 그룹은 정상 혈압 그룹보다 치매 위험이 8.5% 높았고, 고혈압군은 33.8%나 높았다.

성별 분석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혈압 상승에 따른 치매 위험 증가가 더 뚜렷했다. 여성의 경우 상승 혈압과 고혈압 모두에서 유의한 치매 위험 증가가 관찰됐으나, 남성에서는 고혈압 그룹에서만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민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유럽심장학회가 제시한 ‘상승 혈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실제 치매 위험, 특히 혈관성 치매 위험을 예측하는 데 매우 유효함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축기 혈압이 120mmHg를 넘거나 이완기 혈압이 70mmHg를 넘는 단계, 즉 고혈압으로 진단받기 전 상태부터라도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특히 중년층과 여성은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 교정 등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혈관 질환 학술지인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 최신호에 ‘혈압 범주에 따른 치매 위험: 대한민국 전국민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해당 저널은 유럽심장학회 공식 학술지로 미국심장협회 학술지(Circulation),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와 함께 세계 3대 심혈관 임상 저널로 평가받고 있다. 이우리 기자

행복한 동행 전국 지역 지부 및 센터 모집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시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영!



앱(App) 기반
전국 매칭
시스템 구축

2025년 11월,
구글/애플 앱스토어
전격 출시!

앱스토어 검색
"동행365"

병원부터 생활까지 동행
생활 맞춤 동행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www.gacci.net
행복한 동행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움 6길 4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지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강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경기 예술 신학원 학생모집

문화 전쟁의 시대 마귀 문화와 하나님 문화의
대결의 시대에 기독교 문화를 대중화 하고 또한
예수 신앙으로 무장된 예술인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경기예술신학에 모집을 목적에 둔다.



학장 장대수 박사

학력 및 경력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업
광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개신대학원대학교 석사(사회복지전공)
개신대학원대학교 (Ph.D) 철학박사

철학박사

전 극동방송 드라마 성우 / 대한민국 연극계 최인훈작
한스와 그레텔(주연) / 씨프르작, 이강철 연출
출구없는 방 출연(주연) / 세익스피어 작, 오셀로 출연등

학 과	연극신학과
지 원 자 격	고졸이상학력
종 교	기독교세례자
모 집 인 원	약간명
원 서 지 원	25년 1월부터
개강및수업	수시모집
학 제	4년

토요일만 집중 수업 졸업 후 목회자가 되기를 하던 개혁신학교 신학연구원에 입학함

지구촌복음방송

대표 장대수 목사 | 문의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6-2 현대프라자 4층 시흥 사랑의교회 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다문화복음방송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대표 김 덕 겐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터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표연락처
대 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 (담임 박주예목사) 주소:대전 중구 수침로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검단비전교회 (담임 박종민목사) 주소:인천 서구 환경로188번길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움교회 (담임 김양덕목사) 주소:부산 사하구 윤공단로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에일교회 (담임 김순남목사) 주소:충남 태안군 태안읍 샘골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충신교회 (담임 엄광섭목사) 주소:청주시 청원구 윤봉로202번길 69	엄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덴교회 (담임 양정옥목사) 주소: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벌아교회 (담임 김홍식목사) 주소: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천안 충남 경기	26.04.13(월)~14(화)	천안 회복교회 (담임 이종익목사) 주소: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사)에장합동개혁총회장 / 성장교회에석범
	곽윤관 목사	사)에장합동개혁전총회장 /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사)에장합동개혁경총회장 / 목회코칭사관학교/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불교인 전도1년30명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영성훈련 / 부흥사
	임동호 목사	목회 AI활용법 / 찬양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영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폴,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AI VOCAPEN

국내 최초 생성형 AI 언어 번역기 - 보카펜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돌들의
소리지르리라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감행감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아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풀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날 새부터 하소서

기독교 교회사 (2)

넷째, 하나님의 점진적, 단계적 역사 진행에 유의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때로는 태풍과 번개처럼 급진적으로 전개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만하고 또한 점진적,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져왔습니다. 기독교가 아담으로부터 출발되었지만 그로부터 2,000여 년이 경과한 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격적인 진행이 시작되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로부터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감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정립시켜주신 성경과, 그 성경으로부터 정립되어져야 할 기독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다시 2,00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독교의 본질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역사적 완만함과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역사가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완만함과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역사는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인간들의 무지함과 아둔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간들은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가 계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항상 어두웠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지 못하

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으로써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빠르게 진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역사를 진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역사와도 관련됩니다. 일반 역사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만, 일반 역사가 받는 조명은 기독교가 받는 특별한 조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때문에 일반 역사의 진군은 더욱 완만하며 또한 점진적, 단계적 발전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 역사는 독립적이지만 또한 일반 역사를 아우르고 이끌어 가는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 역사와 필연적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는 일반 역사의 완만함과 점진적, 단계적 진군에 조화를 이루며 진행하게 됨으로써 같은 차원에서 완만하고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역사적 진군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적 진행에 절대 유의하여 기독교 역사를 함부로 왜곡하거나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 가는 만행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장 역사의 출발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Romans 10:10 NIV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profess your faith and are sa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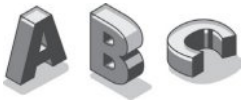
- For : ~하기 때문이다
- justify : 아무 죄가 없음을 증명하다
- profess : 공언(公言)하다(여러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말하다)
- save : 구원(救援)하다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You believe 'with your heart'

and are justified, and you profess your faith 'with your mouth' and are saved.
여기에서 'with your heart'와 'with your mouth'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10장10절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아무 죄가 없음이 증명되며, 또한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역사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언제나 인류 역사를 전제로 한 역사 연구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우선으로 전제한 후 정치 역사, 종교 역사, 산업 역사, 문화 역사, 예술 역사, 전쟁 역사, 학문 역사 등의 역사를 인류 역사에 적용하고 병행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의 출발을 언제나 인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학자, 고고학자들이 고대 역사의 현장들을 발굴하는 목적도 인류 역사의 가장 최 근원을 찾아내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출발은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출발은 역사를 창조한 창조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 그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 역사의 중심

역사학자들의 역사 연구가 인류 역사로부터 출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 논증 중심은 당연히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정립하지 않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정립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의 정립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자신의 피조 세계를 섭리하

시는 것이 되지 못하고, 인류 역사를 뒤쫓아 가면서 인류 역사의 진행에 맞추어 자신의 섭리 역사를 짚어 맞추는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역사의 정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용서받지 못할 악행입니다.

역사의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과 같이 역사의 중심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3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날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며,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기운이나, 정신이나, 운동력에 의해서 생겨나고 발전된 것도 아니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생물들로부터 진화되어 현재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 목적에 의하여 작정되고, 계획되어, 창조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관적 섭리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져왔고 계속하여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중심은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개념 하에서 인간을 모든 역사의 중심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하여 자체적으로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

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임무를 부여하셨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인간을 통하여 자신의 피조 세계를 진행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제3장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의 관계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인 반면에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주역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역사의 중앙 무대에 인간을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인간들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인간들의 역사를 아우르시고 다듬으시면서 기독교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는 시공간에는 언제나 이미 인류 역사가 먼저 존재하고 있었음을 통하여 증명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가 진행되어질 시공간에 이미 인류 역사를 전개시키시어 그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좌, 준비, 예비, 보증, 변증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때가 이르매”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이르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진행하실 때 일반 역사가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좌를 맞추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

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보좌, 준비, 예비, 보증, 변증하게 하실 때에 일반 역사의 진행을 조절하시어 때로는 빠르게 진행시키시거나 하면, 때로는 천천히 진행시키시어 조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하여 기독교 역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 일반 역사를 함께 병용하고 적용하여 일반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증명합니다.

제4장 기독교 역사와 하나님의 종들

기독교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에 의하여 출발하고 진행되지만, 기독교의 중심적 활동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여러 유형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각각 고유한 사명을 부여하시며, 또한 그 사명에 적합한 은사와 능력들을 부여하시어 그들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이라 함은 반드시 인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에는 국가를 비롯하여 가정, 민족, 직장 등등의 각종 조직 사회 영역들이 포함되어지며,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교육, 과학, 철학, 상업, 공업, 문화, 예술, 체육 등등의 영역들이 포함되어지고,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또한 반드시 선한 종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들을 들어 쓰시며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들어 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정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동용되어지는 여러 유형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을 정리함에 있어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논증을 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개인적 신상이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에 대하여 쓰임 받았으며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과, 그들을 통하여 진행되고 결과 되어진 하나님의 섭리 역사만을 논증합니다. <계속>

찰스 스펔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177)

로마서 14장 15절

15.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because of what you eat,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If your brother is distressed : 만일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because of what you eat : 식물을 인하여

·you are no longer acting in love. :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Do not by your eating destroy :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중요한 단어, 속어

distress 근심, 고난, 고민, is distressed : 스트레스를 받는다. no longer~ : 더 이상 ~이 아니다. destroy 죽이다, ~의 목숨을 빼앗다,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소멸하다, 무효로 하다.

because of what you eat :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해

by your eating : 네 식물로, 네가 먹는 것으로

your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 Christ died for your brother : 그리스도께서 너희(우리)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망친다”는 말은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훼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다른 형제가 깜짝 놀라 우리에게 화를 벌컥 내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를 망친 격이 된다.

카톨릭 신자들은 금요일에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말도록 카톨릭 교회나 학교에서 배웠다. 레위기 11장에서는 율법이 인정하지 않는 음식물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롬 14:20-21)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

게는 악하니라).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어떤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숙한 형제들이 이와 같은 음식들과 포도주를 삼가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8:8-13

8 식물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답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니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나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

8 But food does not bring us near to God; we are no worse if we do not eat, and no better if we do. 9 Be careful, however, that the exercise of your freedom does not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weak. 10 For if anyone with a weak conscience sees you who have this knowledge eating in an idol's temple, won't he be emboldened to eat what has been sacrificed to idols? 11 So this weak brother, for whom Christ died, is destroyed by your knowledge. 12 When you sin against your brothers in this way and wound their weak conscience, you sin against Christ. 13 Therefore, if what I eat causes my brother to fall into sin, I will never eat meat again, so that I will not cause him to fall.

에베소서 5:1-2

1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 그

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2 and live a life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해석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6절

16.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않게 하라

·to be spoken of as evil. : 비방을 받지

▶중요한 단어, 속어

consider 생각하다. “what you consider good : 너희의 선한 것” 이 말은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allow 목적어 to 동사~ : 목적으로 하여금 ~할 것으로 허락하다. be spoken of as~ : ~라고 언급되다. to be spoken of as evil 악으로 언급되는데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한 것으로 언급되어지게 허락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제자친국 백성이 된 자로서의 본분에 걸맞게 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들 중 한 가지를 제시한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근거가 뚜렷하고 기준이 올바르며 동기가 순수하고 목표가 정당하다면 아무도 우리가 행하는 일을 비방하지 못할

것인즉,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옳은 일을 하되, 그 일이 옳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우리를 정당하게 욕하지 못할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비방하더라도 절대로 자신들의 비방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구절 말씀의 요체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누가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이 정당한 비방일 수가 없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인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고 옳은 한, 그들이 뭐라고 비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으신다. 정당한 비방이 없는 한 그들의 비방은 무고요, 거짓 고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가 비록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열성이 앞서는 것은 주의할 일이다. 이것은 특히 갓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 그러하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답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성이 앞서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알고 있는 지식이 형편없이 빈약해서 그야말로 잣막이에 불과하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열성부터 내는 것은 경계망동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지식이 없으면 열성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로 양육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진리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침착해지고 냉철해지는 법이다. 오히려 구원받은 지 얼마 안되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열성을 내며 자칫 경계망동하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가급적 행동을 자제하고 언행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10:27-33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밋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고전 10:29) 내가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의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고전 10:30)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전 1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27. If some unbeliever invites you to a meal and you want to go, eat whatever is put before you without raising questions of conscience. 28. But if anyone says to you, “This has been offered in sacrifice,” then do not eat it, both for the sake of the man who told you and for conscience’ sake-- 29 the other man's conscience, I mean, not yours. For why should my freedom be judged by another's conscience? 30 If I take part in the meal with thankfulness, why am I denounced because of something I thank God for? 31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32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whether Jews, Greeks or the church of God-- 33 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해석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하심교회)

동성애 묵상

순종은 거룩함의 길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순종 자체는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 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복 된 본성을 거룩하신 자로서 충만하게 계시하시고 전달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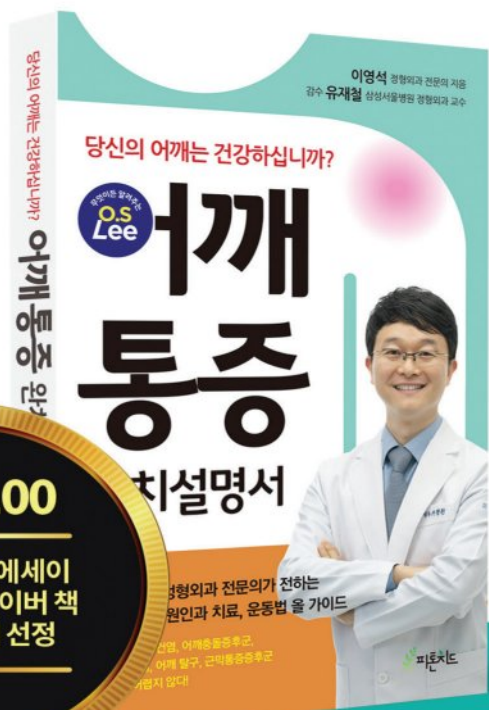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써,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나는 거룩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의 모든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와 생생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내 속으로 끌어 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내면적인 가르침을 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앤드류 머레이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중에서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



한평우 목사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계기를 만날 때 새로운 결단을 한다. 그러나 그 결심이 평생 자신을 지배하게 만드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체로 결심은 용두사미로 끝난다. 그 이유는 결단을 이행하는 일에는 큰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마에스트로 J 선생의 일화가 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네 살 되던 해부터 그에게 피아노를 가르쳤다. 너무 어려 스스로 피아노 의자에 올라갈 수 없었기에, 어머니가 번쩍 들어 의자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피아노를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절대로 그를 의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 네 살 때니 금방 피아노 치는 일에 싫증이 났고, 그래서 내려가고 싶어졌으나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의자에서 내려줄 때까지는 말이다. 올라가 심지어는 때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는, 스스로 피아노와 친구가 되는 길밖에

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이웃 친구와 놀면서 즐거움을 느껴야 하는데, 피아노와 깊은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다. 어는 날 내가 교회 피아노의 건반을 세어 보았더니 흰 건반이 52개, 검은 건반이 36개였다.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건반을 두드려야 했고, 그것을 두드릴 때마다 반응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다양한 소리를 주의 깊게 듣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소리들을 귀담아 듣게 되었고, 그 소리와 깊은 사귀을 가졌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일이었고, 그는 곧 그 소리를 평생의 반려자로 삼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깨달은 행복과 기쁨이자 결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그는 예순이 넘어서까지, 네 살 때 깨달았던 음악의 세계에 빠져 행복을 누리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음악에 폭 빠져 살아가니, 음악이 그에게 충분한 보답을 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성 프란시스는 감옥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 감옥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걸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으나, 그의 마음은 달라졌다. 새로운 세상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 우리의 힘과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 프란시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12세기 말 이탈리아는 약한 도시국가였으나,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프랑스라는 의미로 프란시스(=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단순한 생각으로 지어준 그 이름이, 8백 년이 지난 지금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붙여주는 이름이 되었다. 얼마 전 이탈리아에서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고 싶은지에 관해 설문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이 ‘프란체스코(남아)는 프란체스코, 여아는 프란

체스카’라고 응답했다. 그뿐인가? 교황들도 그 이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모른다. 이탈리아만이 아니라 서양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프란체스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프랑스를 기억하게 하려 했던 단순한 의미의 이름, 그 이름은 이 시대 온 세상을 아우르는 놀라운 이름이 되었다. 이름의 의미, 세상 그것은 실로 대단한 것이 아닐까 싶다. 성 프란시스는 그때부터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라 데는 평범한 삶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는 성서의 말씀대로 따르기 시작했다.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헐벗은 자를 만나면 자신이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옷을 기꺼이 벗어 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집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주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상인인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계기가 되었다. 성 프란시스는 집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했고, 아버지는 먼 프랑스를 오가면서 땀 흘려 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은 가정을 불화의 현장으로, 또는 싸움터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란시스는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하늘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프란시스는 집에 있는 비단과 질 좋은 옷감을 말에 싣고 16km 떨어진 폴리노(Foligno)로 갔다. 그리고 그 모든 물건과 말까지 팔았다. 돈을 손에 쥐게 되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깊이 고민하며 걸어가던 중 아시아에 가까워져 올 때, 길옆에 허물어져 가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는 성 다미아노(S. Damiano)를 기념하여 세워졌지만,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 교회에 들어가니 한 가난한 사제가 있었다. 그는 사제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지니고 있던 돈 전부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에게 맡아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제는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유는 얼마 전까지 프란시스가 자 유분방한 삶을 살던 청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끈질긴 설득을 했지만, 사

제는 프란시스의 부모를 두려워하여 돈만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 프란시스는 돈을 경멸하는 마음으로 창탁에 돈을 던져 버렸다. 그는 돈보다 더 좋은 자해를 소유하고 싶어 했고, 은보다 더 보배로운 하늘의 것을 얻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돈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돈은 우리 곁에서 실질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비굴해지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부모나 친척, 심지어는 부부까지도 상관하지 않으려 하는 세상이다. 상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머뭇거리지 않는 예도 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돈의 막강한 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철저하게 돈과는 거리를 두려고 결심했다. 그런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한평우 목사

로마 한인 교회 담임목사로 35년째 시무하시고, EMI 유럽 목회자 연구원 창립 및 원장, 유럽 Koste 후원회장, 디모데 선교회 회장 및 디모데 로마 선교 아카데미 학장을 맡고 있다.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사립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2-47)



김남수 교수

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의실 안에서, 교회에서, 길가에서 “구원 받았습니까?”가 우리들의 인사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를 격정하는 인사가 영생을 염려하는 인사로 변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헨리 바넷Henry Barnett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3단계

- 첫째 단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 둘째 단계, 하나님을 믿는 단계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단계.
- 셋째 단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단계.

위의 1-2단계를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인 전인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꿈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이라면 마지막 단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사업을 해도, 가정주부가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해도 근본

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직업에 있지 않고 교회의 일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일에 있을 때,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 만전을 피우게 됩니다. 찬양에 집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김남수 교수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회음악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와 신탄진침례교회 음악 목사(역임),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로서 섬기고 있다. 제45회 신인음악회(조선일보)로 데뷔하여, 21회 동아콩쿠르 입상, 18회 난파음악제 우수상, 18-19회 서울음악제에 연속으로 당선했으며, 대전광역시로부터 위촉을 받아 국악 관현악과 합창을 위한 “大田詩曲”(2001)을 발표했고, 합창곡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2002)을 출간했으며, Southern Seminary로부터 Distinguished Composition Award(2003)를 받았다.

이것은 습관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찬송 부르는 태도를 볼 때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인도자는 찬송을 시작해 놓고 자신은 찬송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성도들의 자리를 살핍니다. 찬송을 부르며 이어서 부를 찬송을 찾느라 찬송가를 뒤적거립니다. 성경말씀을 찾는 인도자, 설교 원고를 살펴보는 사람, 무언가 준비가 안 됐는지, 습관적인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찬양집을 뒤적거리는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찬양대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회중찬양에는 관심이 없는 찬양대원, 설교시간엔 습관적으로 졸고, 가운을 품으로 생각하는 찬양대원은 어떻습니까? 회중은 이런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인도자 자신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회중에게 찬양의 감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노랫말의 의미를 깨달으며 노래할 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야 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사를 합시다. “구원 받았습니까?”,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부르는 다.

찬송이 마지막 찬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최선의 찬양을 위하여... 1.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2. 찬양의 감격이 있습니까? 3. 앞에서 제시한 멋진 인사를 나눔시다.

찬양한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임재, 시와 그림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기독교미술인 연말 나눔 전시 ‘12월은, 동·동친구전’ 개최

성탄의 온기를 담은 ‘동·동친구전’ 3회째… 13일까지 열려

기독교미술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모았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화기독교미술인협회, 로고스문화예술선교회의 협찬으로 마련된 제3회 ‘12월은, 동·동친구전’이 2일 서울 송파구 엠아트센터(송파롯데마트 2층) 12관에서 개막했다. 전시는 13일까지 열린다. ‘동·동친구전’은 매년 12월, 기독교 작가들이 착한 가격의 아트상품과 소품을 선보이며 어려운 창작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는 동료 작가들을 응원하

고자 기획된 연말 아트페어다. 올해는 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쿠션, 우산, 의류, 스카프, 시계, 램프, 컵, 키링 등 다양한 굿즈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함께 동(同), 움직일 동(動)”이라는 취지 속에서, 작품 판매 수익금 중 제작비를 제외한 절반 이상을 예술 창작후원금으로 사용해 기독교 문화예술 생태계를 돕는다. 주최 측은 “작품 판매가 쉽지 않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창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기독교 작가들에게



다양한 아트상품이 진열된 전시장 모습. © 주최 측 제공

작은 응원을 건네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2시에는 전시장에서 오픈행사가 열린다. 드레스 코드는 빨강

과 초록이다. 먼저, 녹미 합창단의 연주와 참여작가들이 직접 만든 아트상품을 착용하고 무대에 서는 패션위킹이 열릴 예정이다. 감사예배는 정두옥 부회장(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성탄찬송 인도, 장원철 목사(로고스문화예술선교회)의 성탄메시지와 축도 등으로 드린다. 이어질 2부 순서에는 신미선 회장(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이화기독교미술인회)의 인사말, 참여 작가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통한 작품 판매 및 자선 일일찻집 등을 통한 수익금 전액은 기독교미술인 창작후원에 사용된다. 백선영 기자

모노드라마 ‘침묵’, 성탄 시즌 대학로에서 다시 무대에 오른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엔도 슈사쿠 원작 ‘침묵’
15년 연속 공연



극단 단홍이 일본 소설가 엔도 슈사쿠의 대표저서 〈침묵〉을 원작으로 한 모노드라마를 22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공간 아울에서 선보인다. 김명중 배우가 15년째 단독으로 무대를 지켜온 이 작품은, 고난과 배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깊이 있게 담아내며 그동안 전국 350여 회의 공연으로 많은 교회에 강한 울림을 남긴 바 있다. 모노드라마 ‘침묵’은 신앙 박해가 극심하던 17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 로드리고는 배교했다는 스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으로 향한다. 그는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는 이들을 만나지만, 혹독한 박해 앞에서 순교와 배신, 두려움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실을 목격한다. 신도들이 차례로 처형당하는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는 가슴 속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연출을 맡은 유승희 감독은 원작의

성극 ‘침묵’에서 1인 무대를 채우는 배우 김명중의 극중 모습. ©극단 단홍

주제를 살리면서도 “고통 속에서도 결국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해석을 담아냈다. 단홍은 창단 이후 사회문제·신앙고민을 다뤄온 여러 작품을 제작해왔다. 청소년 뮤지컬 ‘스트리트 가이즈’, 손속 모노드라마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 등을 연출해 온 유승희 감독은 이번 작품을 “예배에 예술을 접목하는 실험이자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공휴일 오후 4시와 7시에 열린다. 백선영 기자

제10회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개막

참빛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겨울빛 향연,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첫 개최

경남 진주시는 최근 진주대첩 역사공원에서 제10회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를 공식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처음으로 역사공원에서 진행되며 새로운 공간적 매력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신선한 겨울 경관을 선사하고 있다. 행사는 진주시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진주

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위원회가 주관했다. 개막식은 따뜻한 감성을 담은 공연들로 시작됐다. 동요 ‘아빠 힘내세요’의 작곡가 한수성 씨가 무대에 올라 친숙한 선율로 관객들의 감정을 이끌었고, 이어 ‘블루비트 밴드’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주창로합창단과 블루드림과 이어도 무대에 올라 세대를 아우르는 조화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후 진행된 점등식에서는 화려한 트리 조명이 켜지며 축제장의 밤을 밝히고 방문객들에게 겨울의 따뜻한 순간을 제공했다. 올해 축제는 ‘참빛과 나눔으로 하나되는 진주’를 주제로 다양한 시민 참여형 행사들이 마련됐다. 특히 12월 6~7일,



진주크리스마스트리 참빛문화축제 개막식 현장의 모습. ©진주시

13~14일, 20~21일, 24~25일, 27~28일에는 매일 오후 6시부터 역사공원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연말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예정이다. 장지동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일산광림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일기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연동(김주용) 30 TV강단 한마음(김승룡)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C채널 스페셜 제1회 아가페국제교정 학술대회 2부 개최식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예배-정은주 30 생명의 말씀 세한-주진	20 할렙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111회) 50 [말씀]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390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새예덴의 언약 (소강석)(915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5회) 50 리바이츠 워십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한국중앙-임석순 50 생명의 말씀 용인비전-신용수	10 신의 2수 20 행복한 쉼터 LA새생명비전(강준민) 50 행복한 쉼터 왕성(김요나)	30 휴먼네컷(51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7회) 40 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79회)	00 포도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문훈 목사
	8:00	20 다음세대 돌봄, 한국교회와 한다(4회) 30 CTS 창사 30주년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 한국교회와 함께, 100년을 향하여	20 솔직한 새기앙들의 토크쇼 저 새기앙 40 다큐 더 로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종훈 목사(구덕교회)(153회)	00 하나님의 음성(100회) 2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90회) 출애굽기 37강	00 비전메시지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 30 비전메시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
	9:00	(편성 없음)	00 사람의 메시지 여의도침례(국명호) 30 선교의 땅 탄자니아를 가다	00 CGN 비전특강(662회) 40 Q&A 107 소요리담(60회) 50 신앙의 세계로 오십시오(10회)	10 새롭게하소서(11036회) 이창원 배다해 부부 2부	00 믿음의 리액션(8회) 경기도 수원시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0:00	0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위대한 유산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20 [특집 다큐멘터리] 땅 끝의 증인들(1회)	00 CBS NEWS 10 20 더 플링(138회) 50 살롱 살롱(17회)	00 강연소 통(93회) 대인관계에서의 실재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극복사례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오후	11:00	0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50 김지연의 중독전쟁(22회)	00 행복한 쉼터 욕길(임재호) 30 행복한 쉼터 제주동홍(박창간)	10 [말씀] 이재훈 목사(은누리교회)(652회) 50 예수동행일기(5회)	00 율포원(691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94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4강 30 선교는 지금(58회) 생타성경사역원 이애실 장장
	12:00	00 CTS뉴스 20 신앙예세이 30 생명의 말씀 대치순복음-현별	00 GOODTV 뉴스 30 오영아어 금요성회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2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214회)	00 TV강단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만리현성결(조준철)	20 말씀의 창 수월재일교회 김근영 목사 50 말씀의 창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대구동신-권성수/문대원 30 [CTS 30년 믿음의 땅작] 내 영혼의 찬양 실만한 물가로	00 예배실황 꿈의(김학중)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일기 고고 바이블(240회)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55회)	00 잘 믿고 잘 사는 법(313회) 20 통학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2회)	2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2390회) 50 내가 매일 기쁘게 깨그우면 정경미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354회)	00 말씀의 힘 신일(배요한) 30 새롭게하소서(11368회) 배우 김아라 1부	00 THE 금금(40회) 치유와 도우심 4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30 선교의 땅 나가사키를 가다	0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643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4395회) 창세기 4강	00 만나 워십 감병삼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원주중부-김미영	00 사람의 메시지 분당선교(윤귀현) 30 행복한 쉼터 송진(권준호)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4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50 [말씀] 박한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21회)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 내 삶의 행복(184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저녁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성령집회 50 빛으로 소금으로	00 김신목 목사와 함께하는 신앙통독 10 행복한 쉼터 군포성산(김자현) 4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3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400회)	10 천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2회)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1964회) 50 행복다이어리(58회)	00 말씀의 창 아산큰빛교회 김성권 목사 30 말씀의 창 LA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
	18:00	00 백석의 시간 장충현 목사 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50 신앙예세이	10 백석대학교 진리의 시간 장충현 40 솔직한 새기앙들의 토크쇼 저 새기앙	10 THE NEW 하늘빛항기(7회) 50 2025 선교한국대회 <세상의 희망 예수>(5회)	00 TV강단 악대(송규의) 30 TV강단 진주초대(이경은)	00 글로벌 신앙토크쇼 왓츠윌(40회) 결혼보다 동거?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19:00	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 30 생명의 말씀 용인기쁨의-정의호	00 사람의 메시지 군포제일(권태진) 30 사랑의 메시지 새은혜(황형택)	(표기 없음)	00 TV강단 김튼(채성렬) 30 TV강단 배다나(곽주환)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20:00	00 생명의 말씀 은평성결-유승대 30 생명의 말씀 포도나무-여주봉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예배실황 지구촌(서울)	20 레디온(161회)	00 CBS 비전특강 박관 목사의 성서적 전안치유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3회) 4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21:00	00 과천교회 75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시냇가 하늘을 과천교회 이야기> 50 CTS뉴스W	10 행복한 쉼터 전주남성(안효관) 40 GOODTV NEWS	00 더사랑의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390회) 출애굽기 37강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87회)	1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236회)
	22:00	20 The Ships : 치유의 항해(1회) 50 위대한 발견들	30 사론의 꽃 필 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교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6회) 50 예수동행일기(5회)	00 CBS NEWS 10 20 율포원(690회)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343회) 20 금요성령집회 제자광성교회
자녀	23:00	0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칠야예배(1048회)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591회)	30 이단 사이렌	10 J.D. 그리어의 성탄 메시지(2025)(1회)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6회)	20 CBS 금요칠야예배 (새예덴교회)(877회)	10 금요칠야예배 수영로교회
	24:00	00 Calling GOD(2390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일기 20 2023 KGMLF(5회)	10 새롭게하소서(11036회) 이창원 배다해 부부 2부	00 새예덴 칠야예배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00	00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11회)	00 신의 2수 1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00 2025 회복축제 (온전함)(24회) 4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176회)	00 신위의마를 말씀 (김영준)(265회) 50 사랑의 말씀 (오정현)(1028회)	00 비전메시지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 50 리바이츠 워십
	2:00	00 TV천양예배 한성교회 50 미라클 Moment 지금 이 순간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526회)	40 이영훈목사의 말씀과 함께(587회)	00 말씀의 창 필그림선교회 양춘길 목사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불>(127회)
	3:00	00 7000미라클 스페셜 50 할렙송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Craig Groeschel's A Better Way(3회) 3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무브먼트)(95회)	10 새롭게하소서(11370회) 손성락 전도사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4:00	00 감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2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30 CTS 경건예배 분당성시/명성훈 45 박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	00 비전설교 분당우리(이천수) 3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10 [말씀] 박신웅 목사(열바인온누리교회)(274회)	00 CBS 성서학당 스페셜 (김지철)(3808회) 전도서 3강 50 CBS 교회소식(1027회)	00 명성교회 수요기도회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uler's equation
Euler's equation
SK Innovation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에너지

SK 지오센트릭

SK 온

SK 엔무브

SK 인천석유화학

SK 아이이테크놀로지

SK 에스온